



### 3차 과제

4월 1주차 }  
}

시가문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지훈, '마음의 태양'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낮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 달게 받으라.

[A]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낮을 살게 하자.

(나) 김남조, '설일'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

(다) 김광규, '때'

남녘 들판에 곡식이 ㉣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 소리 ㉤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 이적진: '이제까지는'의 방언.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문제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0)

- ①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②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자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 ⑤ 자연과 거리를 둬으로써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2] (가)~(다)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1)

- ① (가)는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다)는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다)는 시간의 역전(逆轉)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 3] ㉠~㉣ 중에서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52)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 4] (가)의 '원광'과 (다)의 '무엇'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3)

- ① 시상의 극적 전환을 유도하는 매개물이다.
- ② 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③ 시적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 ④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 준다.
- ⑤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적 긴장을 높여 준다.

[문제 5] (가)를 읽고 시 창작 활동을 하였다. [시연의 내용과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54]

- ① 이제 나는 겨울이 와도 춥다 하지 않으리  
어려워도 자신을 다잡고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잊지 않으면  
어느 세찬 바람과 눈보라인들 내 따뜻한 털옷 되지 않으리
- ②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리  
내 쓰린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들여리  
슬픔은 우리 삶을 둘러싼 아득한 철조망
- ③ 이제 나는 너그럽게 사람과 세상을 받아들여리  
내 마음의 겸손과 원만함이 사람들에게 햇살처럼 퍼지게 하리  
겸손하게 빛나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 마음을 열고 얘기하리라
- ④ 이제 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리  
삶은 험난한 길,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는 가시밭길  
철사 돌아오는 것이 허망한 것이더라도 삶은 원래 그런 것
- ⑤ 이제 나는 발끝의 작은 것도 사랑하리라  
내가 먼 곳만 바라본다면, 나의 발 디딘 곳 아픔을 어떻게 알리  
이제 남은 내 삶은 이웃의 아픔, 슬픔과 함께 하리라

현대 소설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끗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게 된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 [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 -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을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맞본다. ]

< 중 략 >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낯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기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 의식은 어떻게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연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쁘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간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고 결코 녀석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얇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엷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 '대학노트'를 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즈메에리 양복 입은 사나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 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문제 1] <보기>처럼 위 글의 작가와 대담을 한다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5)

<보 기>

사회자 : 상당히 인상 깊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 풍경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작 가 : \_\_\_\_\_

- ① 도시 문명의 여러 측면들을 분석적으로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는 것을 고발하려고 했지요.
- ② 주로 묘사된 풍경들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지요. 작고 소박한 것이 아름답다는 인생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 ③ 피폐한 도시 풍경과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현실의 비극을 초월하여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 ④ 도시의 풍경과 군상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삶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 ⑤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심층 심리를 분석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2] <보기>와 관련지어 위 글에 대한 감상을 말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56)

<보 기>

1930년대의 경성은 식민지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순을 잘 보여준다. 도시 문명이 자리 잡으면서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지만, 실상 사람들은 궁핍과 좌절의 상태에 있었고 지식인들은 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 ① 종로 거리의 전차나 철도 등은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와 관련지어 볼 수 있겠구나.
- ② 구보의 거리 방향과 고독감은 당대 지식인의 정신적 무력감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근대적 모습의 경성역과 그 곳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시대적 모순을 잘 보여 주는 것이로군.
- ④ 백화점에 나들이 나온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변화 조짐을 보여 주고 있구나.
- ⑤ 구보의 눈에 띈 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젖은 사람들로 묘사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도 연결되는구나.

[문제 3] ㉔에 나타난 '구보'의 심정과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은? 57)

- ① 도망군이 짐싸가지고 솔밭길을 빠지듯 / 야반(夜半) 국경의 들길을 달리는 이 괴물이어! // 차창밖 하늘은 내 답답한 마음을 닮았으나
- ②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③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있는 마음 /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거냐. /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거냐.
- ④ 이른 아침 길가에 오가는 / 튼튼한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 그들의 / 공 던지는 날랜 손발, 책보 낀 여생도의 힘있는 두 팔 / 그들의 빛나는 얼굴, 활기 있는 걸음걸이
- ⑤ 어둠의 나라 땅 밑에 번드시 누워 / 흙물 달게 빨고 마시다가 / 비오는 날이면 땅위에 기어나와 / 갈 곳도 없는 길을 헤매노니 // 어느 거친 발길에 채이고 밟혀 / 몸이 으스러지고 두 도막에 잘려도 / 붉은 피 흘러며 흘러며 나는야 / 아프고 저린 가슴을 뒤틀며 사노라

[문제 4] <보기>는 ㉔에 대해 탐구 학습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다. 이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58)

<보 기>

접두사는 어근(語根)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㉔의 '옛-'은 접두사로서 '옛보다', '옛들다' 등 일부 동사에서만 쓰인다. 일부 접두사의 경우 관형사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접두사는 결합이 제한적인 반면에, 관형사는 결합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 다르다. 접두사는 붙여쓰고 관형사는 띄어 쓴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상 생활에서의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① 날이 더워 홀이불만 덮었다.
- ② 새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다.
- ③ 군식구가 더 늘어난 셈이었다.
- ④ 그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다.
- ⑤ 맨손으로 싸워서 적을 물리쳤다.

[문제 5] <보기>가 ㉔에 적합한 구보의 기록이라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9)

<보 기>

○ 아낙네의 행동  
 - 그 이유와 의미를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어 보면?  
 - 오늘날의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것일까?  
 ⇒ \_\_\_\_\_

- ① 인간의 무지함이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과연 그 여인의 염려대로 그 병이 전염되는 것인가?
- ②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일 것이다. 그 여인에게는 별것 아닌 물건이 그 노동자에게는 소중한 것을 쓰였을 것이다.
- ③ 불결한 것을 피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이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문화는 발전하는 법이다.
- ④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자신이 지닌 것에 대해서도 큰 애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 ⑤ 혐오스러운 것을 피하려는 심리이자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인 셈이다. 자기에게 피해가 될 존재들과 얽히는 것을 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현대 소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A][교수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야.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해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

이 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 같은 시절이었습시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교수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사고(思考)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事故)가 난 걸요.

교수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

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회초리를 흔들며) ㉠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는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시 후 새 소리,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B][ 장녀 (관객들에게) ㉡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

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 원고를 가지

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 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지요. ㉢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

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 (교

수를 깨운다.) 아버지. (교수, 눈을 비비며 머리를 든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 드리겠어요.]

교수 (하품을 하며) 그래, 읽어다오.

장녀 (신문을 읽는다.)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이에요. 또 살인입니다.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요.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요. 아버지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 책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씨



가 또 당선됐답니다.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군요. 꿈쩍도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대요.

교수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야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장녀 이거요?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장녀 뭘 번역을 하세요?

교수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한다.

장녀 ㉠ 아버지두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교수 (신문을 보더니) ㉡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시계가 여덟 번을 친다.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쇄를 바꾸어 맨다.

- 이근삼, '원고지'

[문제 1] 위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

- ① 소도구를 활용하여 주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② 무대 장치의 전환 없이 조명을 통해 장면이 바뀌고 있다.
- ③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보통명사로 제시함으로써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장녀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 ⑤ 천사와 감독관이 대립하는 장면을 통해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을 비판하고 있다.

[문제 2]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61)

- ① 교수는 잃어버린 희망과 정열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 ② 교수는 천사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교수는 꿈과 정열을 잃어버린 책임을 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④ 천사는 언어유희를 통해 교수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있다.
- ⑤ 천사는 절망한 교수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문제 3] [B]에 대한 독자(관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2)

- ① 현대의 부조리한 상황을 풍자하고 있군.
- ② 정보를 전달하는 인물의 감정도 섞여 있군.
- ③ 실제로 발생하기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군.
- ④ 사건들이 서로 긴밀한 인과 관계를 맺고 있군.
- ⑤ 짧은 문장을 써서 대사의 속도감이 느껴지는군.

[문제 4]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대사로 보기 어려운 것은? 63)

<보 기>

희곡에서 대사는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고, 등장인물의 성격 을 드러내며, 무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비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류 문명사에서 나노 기술 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류는 농업 시대에는 땅을 정복하였고, 산업 시대에는 자동차·비행기를 통해 공간을 정복하였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발명하면서 시간을 정복하였다. 그에 이은 나노 기술 혁명을 통해서는 나노 크기의 영역에서 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제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 나노 기술 구현의 최대 난제는 나노 물질의 인위적 제조이다. 나노 물질은 ‘나노 점(點)’, ‘나노 선(線)’, ‘나노 박막(薄膜)’의 형태로 구분된다. 나노 박막의 경우에는 원자층 두께까지 제조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나노선과 나노점을 제조하는 기술은 아직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나노선과 나노점을 만들기 위해 하향식과 상향식의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향식 방법은 원료 물질을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작게 쪼개는 방법인데, 현재 7나노미터 수준까지 제조가 가능하지만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상향식 방법에서는 물질을 작게 쪼개는 대신 원자나 분자의 결합력에 따른 자기 조립 현상을 이용하여 나노 입자를 제조하려 한다. 상향식 방법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하향식에 비해 훨씬 유리하나 균일한 나노점이나 나노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점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 나노 기술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분야는 정보 기술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정보 기술은 반도체 메모리를 중심으로 소형화, 고집적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00나노미터 이하의 크기에서는 64기가바이트 이상의 고집적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나노 자성체를 이용한 자기 메모리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테라급 메모리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기 메모리는 집적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도 매우 적어, 조만간 현재의 반도체 플래시메모리를 대신하여 이동 통신 기기나 휴대용 컴퓨터에 이용될 것이다.

㉤ 생체의 상태가 나노 크기 분자의 움직임에 좌우되기 때문에 나노 기술의 혁명은 생명 공학과 의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된다. 다양한 생체 현상을 나노 수준에서 이해하고 응용한다면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센서나 약물 전달 시스템 등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에는, 여섯 개의 단백질로 만들어진 나노 크기의 모터가 인간 몸 속의 ATP를 연료로 구동되어, 수십 나노미터의 플라스틱 공을 움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의 나노 기술 연구는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금속선 제조에 성공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 업적들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고 창의적 연구 인력을 확대해 나가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마련된다면,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 경쟁을 하며 새로운 발견과 발명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64)

- ① 나노 기술 혁명은 물질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② 나노 박막의 제조 기술이 나노 점과 나노 선의 제조 기술보다 발전해 있다.
- ③ 나노 물질의 제조 기술 중, 상향식 방법은 마찰을 통해 입자를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④ 나노 물질을 사용한 자기 메모리는 집적도와 에너지 효율이 매우 우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 ⑤ 우리나라의 나노 기술 연구 수준은 초기 단계이지만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 2] ㉠에 설명된 '나노 모터'를 이용하여 '치료용 나노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원리와 가능성에 대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5)

- ① 생체 내의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므로 거의 영구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 ②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면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 ③ 나노미터 수준에서 단백질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 ④ 생체를 이루는 분자의 상태를 조절함으로써, 질병의 근원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로봇의 제작을 위해서는 생명 공학과 의학, 나노 기술 등의 협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문제 3]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나노 기술'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기사 작성을 위한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6)

<보 기>

1. 신문 기사에서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나노 물질을 활용하여, 제품의 정보를 담은 나노 크기의 칩을 액체에 섞어 뿌리도록 고안된 '뿌리는 바코드'를 개발하였다.
2. 공학 관련 잡지에서 -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는 나노 복합 소재를 이용하여 기존의 것보다 무게는 1/3 수준이고 강도는 10배 이상인 연료 탱크를 개발하였다.

- ① 기사의 제목은 나노 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노 기술과 미래' 정도로 정하는 게 어때?
- ② 위 글 첫째 문단의 내용을 활용해서, 나노 기술 혁명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면서 기사를 시작하는 게 좋겠어.
- ③ 정보 기술과 생명 공학 분야의 응용에 대해서는 위 글을, 기계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할 거야.
- ④ '뿌리는 바코드'에 관한 조사 내용과 위 글의 마지막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나노 기술 발전 현황과 가능성을 설명하는 내용도 추가하자.
- ⑤ 나노 소재를 이용한 생활용품 개발을 통해 우리의 일상 생활이 혁명적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하면서, 긍정적 전망으로 기사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문제 4]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의 필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7)

<보 기>

대상을 분석적으로 쪼개 가며 연구하는 환원주의적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단지 가장 우수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보는 새로운 인간관을 낳았다. 이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DNA의 다양한 조합 일 뿐이며 DNA 조작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당연한 작업일 뿐이다. 이러한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지녔던 특별한 의미는 사라지고 생명은 물질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① 생체 현상조차 나노 크기 분자들의 움직임에 좌우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나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 ② 인간은 다른 생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나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본성을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선부른 결론 아닌가요?
- ③ 나노 물질 제조 기술들의 가능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노 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태도 아닌가요?
- ④ 인류가 지속적인 기술 혁명을 이루어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노 기술 혁명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 ⑤ 나노 기술의 발전만으로 생명 공학에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우수한 정보 처리 능력을 도외시한 판단이 아닐까요?

비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 오늘날 여성들은 체중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빈부, 노소를 떠나서 하나같이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욕망은 다이어트 열풍으로 이어진다. 몸이 우리의 다양한 욕구나 자기 표현과 관련된다든 점에서 다이어트 열풍은 우리 사회를 읽어 내는 하나의 ㉡ 거울이 될 수 있다.
- 2] 몸에 대한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사회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930년대에는 바짝 마른 몸매의 여성이, 19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와 같이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1930년대에는 일하는 여성이 필요했기에 민첩해 보이는 마른 여성이 매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여성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풍조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풍만한 곡선미를 지닌 여배우의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 3] 소비 사회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의 중심이 된다. 산업의 발달로 물질이 풍요해지자 인간은 다양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믿게 되었다. 오늘날 소비는 대중 매체에 의해 조정되고 조절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인간은 ㉢ 영상 매체에서 본 이미지를 모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를 통한 자기 표현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주체적이고 ㉣ 능동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행위는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 4] 날씬한 여성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모든 유형의 다이어트가 오늘날과 같은 이유로 행해진 것은 아니다. 중세에 다이어트는 종교적 생활 양식에서 영혼을 통제하려는 훈육(訓育)의 한 방법이었고, 18세기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 음식의 양과 유형을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오늘날의 다이어트는 대부분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 외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이러한 다이어트 열풍을 부추겼으며, 대중 매체를 통해 점점 더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 5] ㉦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몸에 대한 관심은 자본주의의 상품화 논리에 지배되면서 오히려 자기 몸을 소외시키고 있다. 대중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상품으로서의 몸 이미지와 외모 지향적 가치관은 ㉧ 매력적인 몸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다이어트를 통한 날씬한 몸매 만들기 대열에 합류시킨다. 이처럼 대중 매체 속에서 만들어진 획일화된 몸 이미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몸은 없고 몸 이미지만 남게 한다.



[문제 5] 위 글의 관점에서, 식사 장애를 겪고 있는 <보기>의 화자에게 증상의 원인을 진단하여 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72)

<보 기>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항상 무능하다는 느낌에 압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외모가 매력적이고 날씬하다고들 하지만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연예인처럼 날씬해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내 체중은 눈에 띄게 감소되고 있다. 나의 체중 감소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선은 기쁘다. 체중이 줄수록 내가 서서히 아이의 몸으로 되 돌아가는 것 같아 정말 좋다.

- ① 당신의 증상은 정신 병리적인 것이며 신경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당신의 증상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③ 당신의 증상은 일종의 음식물 섭취 혼란 증후군으로 먹는 것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 ④ 당신의 증상은 양육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유대를 단절하는 반항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⑤ 당신의 증상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획일화된 몸 이미지에 깊이 종속되어 나타난 것입니다.